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척추

논문제목 협부형과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퇴행에 관한 영상의학적 연구

영문제목 **Radiologic studies for degeneration between isthmic and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**

발 표 자 정현윤

책임저자 유재원

저 자 정현윤,손홍문,유재원,서광효

기 관 명 조선대학교병원

서론 : 협부형 및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병변 분절과 인접한 상하위 분절의 단순방사선 검사 및 **Magnetic Resonance Imaging(MRI)**를 통해 퇴행 정도 및 퇴행과 관련된 인자, 불안정성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협부형 및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병변 분절과 인접한 상하위 분절의 단순방사선 검사 및 **Magnetic Resonance Imaging(MRI)**를 통해 퇴행 정도 및 퇴행과 관련된 인자, 불안정성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협부형은 46례, 퇴행형은 49례이었으며, 남자가 31명, 여자가 64명이었다. **Meyerding grade**, 분절각 및 수평전이에 의한 불안정성, 디스크 퇴행 정도, 디스크 높이 등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($p>0.05$) **Modic change**는 협부형에서 A에서는 4례(8.7%), B에서는 24례(52.2%)였고, C에서는 5례(29.4%)였다. 퇴행성형에서는 A에서는 7례(14.3%), B에서는 11례(22.4%)였고, C에서는 7례(18.9%)였다. 협부형에서 병변부인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. ($P=0.03$) **SN**은 A에서는 협부형과 퇴행형이 각각 6례(13%), 9례(18.4%)였고, B에서는 28례(60.9%), 20례(40.8%)였고, C에서는 6례(35.6%), 15례(39.5%)였다. 협부형에서 병변부인 B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. ($p=0.05$) **HIZ** 병변이 관찰된 경우는 협부형에서 38례(82.6%)였고, 퇴행형에서는 30례(61.23%)로 협부형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빈도를 보였고, ($p=0.021$) 협부형에서 병변 상위 분절인 A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. ($p=0.03$)

결론 : 척추전방전위증의 흔한 형태인 협부형과 퇴행성에서 영상의학적 분석 결과 전위의 정도 및 불안정성은 차이가 없었다. **SN**과 **modic change**는 협부형의 병변부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였고, **HIZ** 병변은 협부형에서 더 많이 관찰되고 특히 병변 상위 분절에서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.

acknowledgment :

척추 전방 전위증, 협부형, 퇴행성형, 퇴행 관련 인자, 영상의학적 검사